

이형상의 <次農謠> 연작에 대하여

김진희*

1. 머리말
2. <次農謠> 서문의 내용
3. <次農謠>의 문학적 특성
4. <後農謠>의 특성 및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李衡祥의 『芝嶺錄』 제6책에 나란히 실려 있는 차운시가인 <次農謠>와 <後農謠>를 살펴 병와 악부의 단적 면모를 고찰하였다. 이 두 작품은 병와 당대에 가장 성장되던 작품들 중 하나였던 姜希孟의 <農謠>에 차운한 것으로서, 고전시가의 수용 및 변용과 관련한 병와의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이형상의 <차농구> 연작은 첫째, <농구>라는 조선시가의 고전을 수용한 결과물이되, 고전의 단순 모방에 그치지 않고 형식과 구조의 개성적 변용을 보여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여음이나 민요적 리듬 등 국문시가적 특성을 포착하였으며, 구조적 측면에서는 원시가의 순서를 나름의 원리에 의해 재편하기도 하고, 원시가와 상이한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둘째, <차농구> 연작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원시가와 변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것은 교훈성의 강화와 장르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이 중 교훈성의 강화는 17세기 농촌경제의 피폐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향촌 우거라는 작가의 전기적 요인이

*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의교수.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바, 나름의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장르성의 다양화는 문학성과 관련된다. 특히 <후농구>에서는 사실의 교술적 서술 및 정서의 서정적 서술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장르성은 교훈적 주제를 보다 다채롭게 형상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작품의 문학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차농구> 연작은 형식과 내용의 양면에서 고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월령가>와 같은 후대 국문시가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듯 이형상의 <차농구> 연작은 기존 한시의 단순한 아류작이 아니라, 시의 성과 문학성을 지닌 당대적인 작품이자 고전시가사에서 또한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평가된다.

핵심어 : 이형상, 차농구, 후농구, 농구, 지령록, 한역시가, 여음, 월령, 고전, 수용, 농가월령가

1. 머리말

瓶窩 李衡祥(1653~1733)은 사후 청백리로 봉해졌을 만큼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서 칭송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점보다는 그가 남긴 저술의 방대함과 독창성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樂學便考』와 『樂學拾零』 등 歌樂 관련 저작들은 국문학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 왔다. 『악학편고』에는 조선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시가들 또한 망라되어 있고, 『악학습령』은 현전하는 방대한 시조집인 『瓶窩歌曲集』이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추단되어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그러나 고전 시가분야에서 이형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위와 같은 저작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의 저작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²⁾

1) 『악학편고』, 형설출판사, 1976; 『악학습령』,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권영철, 『瓶窩 李衡祥 研究』, 한국연구원, 1978 참조. 특히 『악학습령』과 『병와가곡집』의 관계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김용찬, 「<병와가곡집>의 형성연대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2002, 189~211면 참조.

국문학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병와의 저작들 중 하나는 『芝嶺錄』 제 6책이다. 이 책은 歌樂論과 관련된 이형상의 중요한 저술로서, 특히 이 책의 후반부, 즉 <東方雅俗樂>조 이하 부분은 한문시가 및 자국어시가를 망라한 당대의 가악문화를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한 자신의 次韻詩歌 및 한역시가 등을 수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³⁾ 본고에서 논의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령록』 제6책에 나란히 실려 있는 차운시가인 <次農謠>⁴⁾와 <後農謠>이다. 이 두 작품은 병와 당대에 가장 성장되던 작품들 중 하나였던 姜希孟(1424~1483)의 <農謠>⁵⁾에 차운한 것인데,⁶⁾ 고전시가의 수용 및 변용과 관련한 병와의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살펴 병와 악부의 단적 면모를 고찰하려 한다.⁷⁾

<차농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병와 당대에 가장 성장되었다고 하는 강희맹의 <농구>에 차운한 작품이라는 점, 작품의 의미에 대해 꽤 긴 서문을 남기고 나중에 문집에도 선별하여 수록할 만큼 병와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령록』 제6책에 실린 여타의 차운시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다. 그러나 <차농구>에 대한 작품론은 아직

- 2) 러기현, 「瓶窩 李衡祥의 樂論 研究」, 『한국시가연구』 제9집, 2001, 363~392면; 러기현, 「병와 이형상의 樂論 연구(2)」, 『반교어문연구』 제12집, 2000, 87~119면 참조.
- 3) 김진희, 「瓶窩 李衡祥의 樂府觀을 통해 본 『芝嶺錄』 第六冊의 체제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가학회, 2012 참조.
- 4) 이 작품은 『지령록』 제6책에는 <語汝羅邪對次確者古老農>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반면, 『병와집』 권3에는 <次農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보다 후에 붙여진 제명을 따라 본고에서는 이를 <차농구>로 지칭하기로 한다.
- 5) 강희맹의 <농구>는 『私淑齋集』 권11, 衿陽雜錄 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하였다. 여기에는 제목이 <選農謠>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이를 <농구>로 지칭한 까닭은 이형상이 이를 <농구>라 불렀으며, 『東文選』에도 그 제목이 <농구>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 6) <농구>가 이형상 당대에 성장되었음은 『지령록』 제6책의 「聖代風樂」조 중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且如姜希孟, 農謠, 鄭澈, 關東別曲, 最播於文苑, 使唱之間, 自當有登壇, 而折衷者, 今不敢雌黃.” (또한 강희맹의 <농구>와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것은 문단에 가장 많이 퍼져 있으니, 부르고 듣는 사이에 저절로 마땅히 문단에 오르지라 절충하여 고치는 것은 감히 하지 못한다.) 또한 『私淑齋集』 권11, 「衿陽雜錄」 에 수록된 <選農謠>에는 “創格爲之, 詞極理達, 公之所作, 無逾於此.”(새로운 격조로 지어 그 가사가 지극히 이치에 통달하였으니, 공의 작품 중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國朝詩刪』의 평이 붙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농구>는 강희맹의 대표작으로 손꼽혔을 뿐만 아니라 이형상의 당대까지도 널리 불리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7) 필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儉父詞>에 대해서도 행한 바 있다. 김진희, 「병와 이형상의 <儉父詞>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6집, 열상고전연구회, 2012.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서문에 있는 여음 관련 기록이 권영철에 의해 고찰된 바 있으나,⁸⁾ 이는 작품 자체를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 후로도 이 작품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편, <후농구>는 강희맹의 <농구>가 지닌 형식을 빌리면서도 내용과 구조면에서 병화가 더욱 창의성을 발휘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월령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조선조 시가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후농구>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차농구> 및 그 서문, 그리고 <후농구>를 함께 고찰하여 이들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고, 이형상이 <농구>라는 조선시가의 고전을 수용·재창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차농구>와 그 서문을 강희맹의 <농구> 및 그 서문과 비교·검토할 것이다. 그 가운데 <차농구>의 내용·형식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 <후농구>를 다시 <차농구> 및 <농구>와 비교하며, 그 구조·장르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⁹⁾

2. 〈次農謳〉 서문의 내용

『병와집』 소재 <차농구>의 서언은 매우 간략하다.¹⁰⁾ 이에 비해, 『지령록』 제 6책에는 <語汝羅邪對次確者古老農>이라는 제명 하에 짝 긴 서문격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차농구>가 지닌 여음상의 특성과 형식적 특성, 그리고 <차농구>의 제작 목적 등이 서술되어 있어, <차농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다음에 그 전문을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¹¹⁾

8) 권영철, 앞의 책, 122~131면.

9) 강희맹의 <농구>는 『국역 동문선』에, 이형상의 <차농구>는 『국역 병와집』에 작품 전문과 그 현대어역이 실려 있어서 참고가 된다. <후농구>의 전문과 번역은 본고 말미에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10) 『병와집』 권3 樂府 에 실려 있는 <次農謳> 서언은 다음과 같다. “私淑齋姜希孟, 咏農謳十
四闋, 頗古雅可喜, 遂步其韻而佐酒.”

<어여라사대>-<확자고노농>에 차운하다.

일을 일으키고 대중을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소리가 있으니, 제나라가 떨쳐 일어나고 주나라가 칼끝을 휘두를 때도 이리할 따름이었다. 진한 이래로 매번 ‘邪’를 부른 것은 대개 괴로움을 원망한 것이니, 그 ‘邪’를 불러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어여라사대’라는 말로 메기고 받는 소리를 삼는데, 이른바 ‘어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뜻의 말이고, 이른바 ‘사대’라는 말은 그 샷됨을 돌려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메기는 이가 먼저 [‘어여라’ 하고] 부르면 받는 이가 [‘사대’ 하고] 따라 응한다. 메기는 이가 또한 별도의 말로 가사를 지어 흥을 내면 받는 이가 이어 ‘사대’로 대응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는데, 이 또한 습속이 그러한 것이다.

운송거사 강희맹이 <確者古老農> 14장을 노래했으니, 이른바 ‘和’[받는 소리]라는 것이 있고, 또 이른바 ‘噴’[떠는 소리]이라는 것이 있다. 그 자서에 이르기를 “<雨暘若>으로부터 <待飮>에 이르기까지는 慢調로 하여 점심 전까지 쓰고, <鼓腹>으로부터 <濯足>에 이르기까지는 促調로 하여 점심 이후로 쓴다. ‘만조’에서 받는 소리인 ‘屎應阿地利’라는 것은 시골사람들이 형제들 간의 호칭으로 서로를 친근히 부르는 것이다. ‘축사’에서 받는 소리인 ‘確者古老農’은 사리를 분명히 아는 이는 오직 옛 농부뿐이라는 것이다. ‘떠는 소리’란 노래를 마침에 기를 뿜고 입술을 ‘두루농’ 하고 떠는 것이니, 그 형세를 돕는 것이다.”라 하였다. 총괄하여 말하기를, “그 소리가 비장하여 여항의 노래와 같은 조가 아니다.”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중 <捲露>, <迎陽> 등의 곡이 있었으나 그 가사는 없었으니, 이는 분명 근심을 잊고 노니는 은일지사가 지어, 힘쓰는 백성이 밥을 기다리는 뜻을 우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 가사를 잃어버리고 다만 그 곡조에 의지하여 다른 노래를 섞어 쓸 뿐이다. 이에 곡명이 남아 있는 것들을 모으고, 또 내 뜻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고 하였다.

아아, 거사의 힘씀이 부지런함이어. 그러나 <望秋>와 <誇農>이 <待飮>

11) 권영철의 해석이 이미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는 본고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둔다. 권영철, 앞의 책, 122~126면 참조.

전에 있어 너무 이르다. ‘두루농’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는 서로 뿔어내기만 하면서 이를 일컬어 입술을 떠다고 하니, 원래 곡조를 잃어버린 듯하다. 다만, 기를 내뿜고 혀를 스쳐 뿔을 두드린다고 말한다면, 후에 노래하는 이가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 소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노래는 끝날 때 ‘다농다리호지리다리아’라고 하는데, 진실로 그 소리를 내는 이가 농사를 기리는 가사이다. 고려의 별곡에는 문득 ‘알리알리알랑성 알라리알라’라 하고, 또 ‘두어령성다렁지리’라고도 하는데, 각기 우리 말을 따른 것이다. 이는 또한 주자가 이른바 ‘何何何, 賀賀賀’ 따위로 여음을 보충한 것과 같은 뜻이다.

이제 ‘어여라사대’라는 말로 가사를 삼고, ‘두루농’이라는 말로 곡을 마치는 것이 해롭지 않으리니, 샷됨을 물리치고 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강희맹 <농구>의] 그 운을 밟되 대략 그 차례를 바꾸어 밟 때는 이들이 창하게끔 하였다.¹²⁾

첫 번째 단락은 ‘語汝羅邪對’에 대한 설명이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은 이형상 당대에 메기고 받는 소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어여라사대’라는 고유어의 가차 표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중 ‘邪對’에 대해 이형상은 ‘샷됨을 돌려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풀이하여, 한자어로 해석하였다. 여하간 메기는 소리인 ‘어여라’와 받는 소리인 ‘사

12) 단락 구분과 번호 표시는 필자가 편의상 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興事動衆，必有聲，齋奮周之振鋒是已。秦漢以來，每稱呼邪，蓋怨苦，而呼其邪，以警之也。國俗以語汝羅邪對，爲唱和之詞，所謂語汝羅者方言，惡而斥之之詞，所謂邪對者，反其邪而歸正之意。唱者先呼，則和者隨應，唱者又以別語撰辭，以發其興，則和者連以邪對應之，不復更端者，亦其習俗然也。/ 雲松居士 姜希孟，咏確者古老農十四章，有所謂和者，又有所謂噴者，其自序曰：“自雨陽若，至待饑，爲慢調，用之於饑前，自鼓腹至濯足，爲促調，用之於饑後。慢調，和辭之屎應阿地利者，村人相稱以兄弟，親之辭。其促詞，和聲之確者古老農，商確事理，惟古之老農也。噴者，歌終，吐氣振脣頭農者，助其形勢也。”摠之曰：“其聲悲壯，不與里謳同調。”又曰：“其中有掩[捲]의 오기露，迎陽等曲，而無其辭，是必隱逸之樂而忘憂者爲之，以寓其力民代食之意，而田氓忘失其辭，但依其調，雜用他歌耳。乃採曲名之存者，又以己意，補缺”云云。/ 噫，居士之用意勤矣。然望秋，誇農，在饑前太早。頭農者，今亦相噴而謂之搖脣，似失本調，但曰，吐氣點舌鼓頰云爾，則後之唱之者，足可玩其詞而想其聲矣。/ 且也，新羅曲終，必以多農多利乎地利多利也，爲聲者固譽農之詞。麗人別曲輒曰，夜乙理夜乙理 夜乙郎城，夜乙羅里夜乙羅，又曰，杜於乙應城多利應地利者，各隨其俚語。而亦晦菴所謂何何何，賀賀賀，以補餘音之遺意也。/ 今以語汝羅邪對爲辭，頭農爲闕者，不害，爲斥邪而反正。故步其韻而略變其次，以爲握鋤者倡。

대'를 설명한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서문의 제일 처음에 놓은 것은 이형상이 <차농구>의 여음으로서 이를 선택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은 이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은 강희맹의 <農謳> 14장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는 '받는 소리'와 '떠는 소리', '慢調'와 '促調', <농구>의 창작 과정 등을 강희맹의 自序를 인용하며 설명하였다. 인용한 내용은 강희맹의 『私淑齋集』 권11 중 「衿陽雜錄」 내 <選農謳>에 붙어 있는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¹³⁾ 강희맹의 자서는 <농구>를 짓게 된 과정과 그 전반적 성격을 다룬 전반부, <농구> 각 장의 내용을 설명한 중반부, 곡조와 여음 등을 소개한 후반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형상은 이 중 후반부의 내용을 먼저 인용하였고, 이어 전반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즉, 먼저 <농구>에 '받는 소리'와 '떠는 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작품의 전반부는 '慢調'로, 후반부는 '促調'로 불림을 밝혔다. 이어 만조의 받는 소리인 '屎應阿地利'와, 축조의 받는 소리인 '確者古老農', 그리고 떠는 소리인 '頭屢農'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시 강희맹의 자서 중 전반부를 인용하여, 곡조와 몇몇 제명만 남아 있는 원노래에 강희맹이 새로 가사를 지어 <농구>를 완성한 과정을 밝혔다. 이 단락에서 설명한 내용들 중 이형상의 <차농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떠는 소리인 '頭屢農'인데, 이 사실 또한 이 서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 단락은 강희맹의 <농구>가 지닌 한계를 설명한 부분이다. 그 한계로서 각 장의 순서와 여음 '두루농'이 지적되었다. 강희맹의 <농구>는 점심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待飪>장을 기준으로 전반과 후반으로

13) 이형상이 인용한 것은 대체로 『사숙재집』의 기록에서 몇 가지 글자들이 빠진 형태로 되어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강희맹, <選農謳>, 『衿陽雜錄』, 『私淑齋集』 권11: “和[缺]噴[缺] 確者古老農[缺] 吐氣振唇. 右農謳十四章, 雲松居士姜景醇之所作也. 居有衿陽弊業, 數往來其間, 樹藝種植, 靡不親試之, 稍知稼穡之事, 聞農謳, 有所謂呼應者. 其聲悲壯, 不與里巷之歌同調. 其中有捲露迎陽等曲, 而無其詞, 是必隱逸之士, 棲身畝畝, 樂以忘憂, 發爲曲調, 以寓夫力民代食之意. 而田氓無知, 忘失其詞, 而但依調雜用他歌耳. 今採曲名之存者, 又以己意, 撰爲曲名, 以補其闕, 依名制詞, 各附其下, 然後農家之終始本末略具, 凡十四章. …중략(각 장에 대한 설명)… 自雨暘時若至待飪, 定爲慢調, 用之於飪前半日. 自鼓腹至濯足, 定爲促調, 用之於飪後半日. 由慢而及促, 樂調之體然也. 其長短節奏, 別爲譜法如左. 其慢調, 和辭之屎應阿地利者, 村中之人, 交相呼喚, 必稱兄弟者, 親之之辭也. 新羅曲終, 必多農多利乎地利多利也, 其稱利者, 譽農之辭也. 其促調, 和辭之確者古老農者, 商確事理, 審而有智者, 唯古之老農也. 所謂噴者, 歌終, 必吐氣振唇頭屢農, 助其聲勢也. 姑存大槩, 以俟博雅君子正焉.”

나뉜다. 그런데 이형상이 보기에 <望秋>장과 <誇農>장을 <대엽> 전에 두는 것은 내용의 흐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이형상의 <차농구> 형식에 반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볼 것이다. 한편, ‘두루농’ 또한 그 소리가 이형상 당대에는 변질되어 있었음이 지적되었다.¹⁴⁾ 그러나 그 원소리를 복원할 방안을 이형상은 지적하는데, 이는 복원된 ‘두루농’ 소리를 <차농구>에 사용하고자 하기 위함임을 역시 이 서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볼 수 있다.

네 번째 단락은 여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신라의 여음으로 든 ‘다농 다리호지리다리아’에 대한 것은 강희맹의 <농구> 서문에 나온 것과 흡사한 반면, 그 외의 설명들은 이형상 자신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고려의 노래에 모두 여음이 존재하였음을 들고, 또 이러한 여음이 주자가 남긴 뜻과도 일치함을 보여, 여음의 존재 가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설명은 이형상이 자신의 <차농구>에 새로이 여음을 붙임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듯 새로이 여음을 붙여 <차농구>를 지었음이 마지막 단락에서 서술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차농구>에 사용된 여음의 종류, 원 <농구>와의 관계, 그리고 <차농구>의 제작 목적 등을 서술하였다. 먼저, <차농구>에서 ‘어여라사대’와 ‘두루농’이라는 두 가지의 여음을 노래의 全般 또는 말미에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이어, 강희맹 <농구>를 차운하며 그 순서를 변경하여 <차농구>를 제작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앞선 내용들과 관계되는 것으로, 마지막 단락은 서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가장 끝으로 <차농구>의 제작 목적이 농부들로 하여금 이를 창하게 하는 것임을 밝혔는데, 이러한 목적은 <차농구>의 내용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문에서 밝혀진 이와 같은 <차농구>의 특성들이 작품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형태·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 내용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14) 金正國(1485~1541)의 『思齋集』 권1 중 <續呼耶歌次李相國石亨韻>에 ‘頭婁農’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提鋤唱復和 振唇如雷騰野谷’이라는 시구 중 ‘振唇如雷’ 뒤에 ‘俗言頭婁農, 和歌聲也.’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16세기에도 ‘두루농’ 소리가 보존되었던 듯한데, 이형상의 시대에는 그것이 이미 많이 잊힌 것으로 보인다.

3. <次農謳>의 문학적 특성

3.1. 형태·구조적 특성

<차농구>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음과 리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농구>의 서문에서 가장 길게 서술된 것은 ‘어여라사대’와 ‘두루농’이라는 여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차농구> 작품 자체에서는 이 여음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차농구>가 실제로 연행되었을 때에는 서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어여라사대’라는 여음을 노래 중간 중간에 붙이고, ‘두루농’이라는 여음으로 노래를 종결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한편, 리듬과 관련해서는 서문에 나와 있는 바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이 눈에 띈다.

提鋤莫忘提酒鍾 提酒元是提鋤功

(호미 들 제 술잔 들 것 잊지 마소 / 술잔 들도 호미를 든 공이라네)

-<농구>

提鋤提鋤復提鍾 鍾有餘飲鋤有功

(호미 드세 호미 드세 술잔도 드세 / 술잔 속에 술 남음도 호미 공이라)

-<차농구>

위에 인용한 부분은 제4장 ‘提鋤’의 일부를 <농구>와 비교한 것이다. <농구>에서는 ‘提鋤’와 ‘提酒’ 등 비슷한 음상을 반복하여 경쾌한 리듬감을 살리면서, 노동과 여가를 함께하는 농민의 건강한 삶을 표현하였다. <차농구> 역시 비슷한 내용을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는데, 특히 인용한 부분 중 前句가 주목된다. 이 구는 ‘提鋤 / 提鋤 / 復 / 提鍾’으로 읽혀 그 리듬이 한 국민요에서 흔히 보이는 ‘aaba’꼴과 같다. 자국어 노래의 리듬을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지령록』 제 6책에 들어 있는 시조한역시인 <今俗行用歌曲>에서도 보이는 바,¹⁵⁾ 이러한 리듬상의 특성은 병와 악부의 한 특징이라

15)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90~98면 참조.

하겠다.¹⁶⁾

여음과 리듬을 제외하면 형태상 <차농구>는 <농구>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운자는 모두 일치시켰으며, 각 구의 자수 또한 다름이 없다.¹⁷⁾ 그러나 장의 순서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다. <차농구>는 <농구>의 장 순서를 바꾸어 전편의 내용상 흐름이 보다 자연스럽도록 구조적 변경을 가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차농구> 서문의 내용과 상통한다. 서문에서 이형상은 <농구>의 장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차농구>를 지은 것이다. 두 작품 간 장의 순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농구>	雨陽若	捲露	迎陽	提鋤	討草	誇農	相勸
<차농구>	雨陽若	捲露	迎陽	提鋤	討草	相勸	竟長畝

	8	9	10	11	12	13	14
<농구>	待饑	扣腹	望秋	竟長畝	水鷄鳴	日銜山	濯足
<차농구>	待饑	鼓腹	水鷄鳴	日銜山	濯足	望秋	誇農

원작의 순서가 달라진 부분은 위 표에서 밑줄 친 ‘誇農’, ‘望秋’, ‘竟長畝’의 세 부분이다. 이형상은 <차농구> 서문에서 “‘望秋’와 ‘誇農’이 ‘待饑’ 전에 있어 너무 이르다.”라고 하여 원작의 순서가 지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望秋’와 ‘誇農’ 부분을 작품의 후미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¹⁸⁾ ‘望秋’, 즉 추수를 기다린다가, ‘誇農’, 즉 농사꾼임을 자랑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농부의 일상을 서술한 이후에 작품을 매듭짓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형상은 판단한 것인데, 일리가 있는 생각으로 보인다.¹⁹⁾ 한편, 긴 밭을 다 마친다는 뜻의 ‘竟長畝’는 원작에서는

16) 이러한 특징은 여음을 중요히 여기는 것과도 동케에 놓인 것이라 보인다. 모두 국문시가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7) ‘권로’에서만 제3구가 5자에서 7자로 바뀌었다.

18) 사실 <농구>에서 ‘望秋’는 ‘待饑’ 전에 나오지 않는다. ‘望秋’와 ‘誇農’ 모두가 ‘待饑’ 전에 온다고 서술한 것은 이형상의 착오로 보인다.

19) 물론 원 <농구>의 순서 또한 일정한 이유에 의해 정해진 것임은 강희맹의 서문에 드러나

11번째에 있었는데, 이형상은 이를 6번째의 ‘相勸’(서로 권하다)과 8번째의 ‘待饁’(점심을 기다리다) 사이에 위치시켜 농사일의 절정을 표현하였다. 이 역시 일리가 있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대엽’ 이전에는 힘써 농사짓는 모습이, ‘대엽’ 이후에는 만족하고 즐기며 쉬는 내용이 일관되게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차농구>의 장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의 은혜를 칭송하는 제1장 <雨暘若>을 전체의 서장으로 볼 때, <차농구>는 제8장 ‘대엽’을 기준으로 전 6장과 후 6장으로 나뉜다. 전 6장에서는 이슬을 걷으며 농사일을 시작하여[捲露], 아침해가 떠오르고[迎陽], 김을 매며[提鋤, 討草], 서로 독려하고[相勸] 경쟁하는[竟長畝] 모습을 그려, 농사일을 시작하여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후 6장에서는 포만감에 기뻐하고[鼓腹],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하고[水鷄鳴], 해가 저[日銜山] 밭을 씻고 돌아가는[濯足] 모습을 그려, 여유를 즐기고 농사일을 마감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덧붙여 수확을 기다리고[望秋] 농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誇農] 모습을 다시 서술하여 농민의 희망과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3.2. 내용적 특성

원 <농구>와 비교하여 병와의 <차농구>가 달라진 지점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인다. 교훈성이 강화된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서문에서 서술한 <차농구>의 제작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은 <차농구> 제작의 목적이 “밭 매는 이들이 창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혀 놓았다. 이렇듯 농민에게 부르게 할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기에 <차농구>는 <농구>에 비해 교훈성을 더 짙게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농구>와 <농구>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있는 바와 같다. 참고로 강희맹의 자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次之以誇農者, 四民之中, 唯農最苦, 非心誠好之, 安知本之在是歟? 玩審詞意, 則逐末者, 亦可小省矣.”; “次之以望秋者, 來牟已熟, 不至空乏, 鼓腹之後, 旋望有秋, 心情之常也.”

장제목	<농구>	<차농구>
相勸	勉勤苦 田畯來相促	夜不休 翁姑互相促
	힘써 일하세 / 관리가 와 재촉하리다	밤에도 쉬지 않고 / 늙은 부부 서로 재촉하네
待饑	待饑時 提鋤不得力	時自晏 忍飢須自力
	들밥 기다릴 땐 / 호미 들 힘도 없네	시간이 흐르지 않네 / 굶주림 참고 모름지기 자력하라
水鷄鳴	水鷄鳴當舉扈 朝鷄累數扈 已覺醺人肌	水鷄鳴侑我扈 朝來獵村醪 至晚猶忘飢
	비오리 울면 응당 술잔을 들리 / 새벽닭 울 때 몇 잔 거푸 들이켰 지만 / 취한 사람 배고픔을 벌써 깨닫네	비오리 울어 술맛을 돋우네 / 아침에 나오며 마을에서 막걸리 를 기울였더니 / 해지도록 오히 려 배고픈 줄 모르겠네
日銜山	回看斜日已啣山 夕露微升凝葉端	落日欲銜半邊山 衆手齊奮又更端
	돌아보니 저녁해는 서산으로 넘 어갔고 / 저녁이슬 송송히 잎 끝 에 맺혔네	지는 해가 어스름한 산 속으로 들어가니 / 농부들 일제히 분발 하여 힘을 내네
濯足	十二時何時可伸脚	牛衣中亦足伸縮脚
	하루라도 열두 때에 어느 때야 다릴 퍼리	쇠덕석에 누워서도 다리 뻗기 족하다네

위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차농구>가 <농구>에 비해 내용상 두드러지는 지점은 권면과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 중 ‘相勸’과 ‘待饑’, ‘日銜山’ 등에서는 권면의 내용을 강화시켰다. 특히 ‘대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직설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장을 통해, <농구>에서는 궁핍한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데 비해,²⁰⁾ <차농구>에서는 굶주림을 참고 스스로 힘쓰라는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차농구>의 다른 장들에서는 이러한 직설적 서술은 없지만, 스스로를 독려하는 농민들

20) 『사속재집』 소재 <농구>의 ‘경장무’장 말미에는 “辛苦到頭(고생스러움이 극에 달하다)”라는 평이, ‘대엽’장 말미에는 “描出十分好(묘사가 뛰어나다)”라는 평이 붙어 있다.

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교훈적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권’ 장에서 보면, <농구>에서는 관리가 농사일을 재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차농구>에서는 농민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배자가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는 것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다. 관리의 체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 농민의 상을 이 장에서는 형상화하였다. ‘일함산’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농구>에서는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갈 무렵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린 데 비해, <차농구>에서는 석양 무렵에도 오히려 분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역시 근면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한편, <차농구>의 ‘水鷄鳴’과 ‘濯足’ 등에서는 원 <농구>의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긍정적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농구>에서는 아침에 막걸리를 마셨지만 이내 배가 고파짐을 말하여 농민의 곤궁한 삶을 내비친 데 반해, <차농구>에서는 해지도록 배고픈 줄을 모른다고 하여 농민의 삶을 보다 풍요로운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 <농구>에서는 다리를 펼 때가 없을 만큼 고달픈 농민들의 삶을 묘사한 것에 비해, <차농구>에서는 곤궁하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농민의 삶을 표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농구>와 <차농구>는 전반적으로 활기와 희망에 찬 긍정적인 농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러는 가운데도 원 <농구>가 농민의 곤궁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²¹⁾ <차농구>는 농민의 사실적 삶보다 이상적 모습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는 이형상이 <농구>의 대의에 공감하여 이의 모방작을 지으면서도 그 자신의 또 다른 이유에 따라 원작의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또 다른 이유란 서문에서 명시한 <차농구>의 창작 목적에서 일차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형상은 <차농구>를 지어 이를 농부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작품의 교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

21) 아들 龜孫이 지은 『금양잡록』의 발문 중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又採農謠，制爲歌詞，其服田力穡，終歲勤勤之苦，極其形容而盡其意。”(또 農謠를 채집하여 歌詞를 지으셨는데, 농민들이 농사에 종사하여 일 년 내내 힘쓰는 괴로움을 지극히 잘 형용하여 나타내셨다.)

나 이러한 교화의 의도는 강희맹 또한 아마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²²⁾ 만일 그렇다면, 동일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두 작품이 달라진 데에는 작품을 둘러싼 작가의 사회적 상황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형상이 살아간 17세기는 양란 이후 백성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신분제의 동요가 일던 때였다.²³⁾ 이형상의 행장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사망에서 도적떼가 일어났던 기록들을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시점에서 백성의 교화는 치자에게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차농구>를 지은 것은 이형상이 관직을 버리고 영천의 호연정에 우거하던 때였으니,²⁵⁾ 농민의 삶에 보다 근접한 在地士族의 위치에서 이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형상은 더욱 강하게 가졌을 직하다. 이와 달리, <농구>를 지은 강희맹은 한평생 내직의 요직만을 맡은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훈구파 관리였으니, 농민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을 그토록 뼈저리게 체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형상이 교화를 중시했던 모습은 행장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된다. 이형상은 도적떼의 진압을 위해 수차례 활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기록들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도적들이 스스로 양민이 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²⁶⁾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시한 이형상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한 교화의 측면을 치자로서 이형상은 무엇보다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각지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향약을 실시하는 등 유교를 진작 시킨 반면, 신당이나 무속은 혁파하려는 노력을 수차례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유자의 입장에서 풍속을 교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관

22) <농구>의 교화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된 바 있다. “집권층으로서 강희맹의 농촌시는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王化와 함께 농민의 정신적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신연우, 「朝鮮前期 官人 農村詩의 構圖」, 『국제어문』 제25집, 2002, 75면.

23)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해안, 2005, 29~34면 참조.

24) 금산군수(37세), 경주부윤(47세)으로 재직하던 당시 화적을 진압한 기록이 있고, 79세 되던 때에는 화적의 발호를 피해 紫烟島로 주거지를 옮겼던 기록이 있다.

25) 이형상은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1702년 무렵 이후로는 줄곧 경상북도 영천에서 우거하였다. 『지령록』은 1706년에 지어졌다. 『병와집』 행장 및 권영철, 瓶窩全書 解題, 『瓶窩全書』 제1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5면 참조.

26) 각주 24) 참조. 도적떼를 양민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은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일이다.

으로 부임하면 먼저 환곡을 나누어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곤 했던 그가 농민들의 곤궁함을 몰랐을 리 없다. 수차례 화적떼를 진압하고자 애쓴 그가 곤궁한 농민들이 다른 방도가 없어 도적이 되는 비참한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보다는 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농민상을 그가 <농구>에서 그린 것은 교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믿는 유자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형상의 <차농구> 및 그 서문을 살펴보았다. <차농구> 서문은 <차농구>의 내용·형식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문에서는 <차농구>의 제작 목적이 농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게 하는 것임을 밝혔고, 또한 원 <농구>의 순서 및 여음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서문의 내용과 호응하여 <차농구>는 교훈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적 특징과, 원 <농구>의 순서를 바꾸고 여음이나 민요적 리듬 등 국문시가의 특성을 포착했다는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 중 교훈성의 강화라는 측면은 농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분히 그것을 이상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기에 족하다. 그러나 이 또한 17세기말의 지방관 또는 재지사족으로서 이형상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해석할 때 <차농구>는 형식면에서는 국문시가의 특성을 살리면서 내용면에서는 병와 자신의 삶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차운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병와는 자국시가의 고전을 계승하고 한편으론 고전을 새로이 쓰는 작업을 행한 것이다. 이는 다음에 볼 <후농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4. <後農謳>의 특성 및 의미

4.1. <후농구>의 문학적 특성

『지령록』의 <차농구> 뒤에는 ‘후농구’라고 제명한 시편이 연달아 실려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서문이 붙어 있다.

余既次私淑齋，然此特細節耳。又次其大綱，以與耒耨者共。

(내가 이미 사숙재의 시에 차운하였으나, 이것은 다만 작은 절목들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 이제 또 그 대강에 따라 지어 농부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전 장에서 본 바대로 <차농구>의 장제목들은 <농구>의 장제목들과 일치한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각 장의 순서만 다르다. 이에 따라 <차농구>의 내용은 <농구>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었다. 그러나 이형상은 <차농구>의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후농구>를 지어, <농구>의 외적 형식은 따르면서도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는 그와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특징은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차농구>가 “작은 절목들에 따”라 지어진 것인 데 반해, <후농구>는 “그 대강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위 인용문은 명시하고 있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후농구> 각 장의 제목들을 통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1. 盖屋 지붕이기	2. 築沭 보 막기	3. 種黍 기장 심기	4. 注苗 못물 대기	5. 折草 감매기	6. 反田 번진	7. 養蠶 양잠
8. 移秧 모내기	9. 纏絲 실짓기	10. 打麥 보리타작	11. 耕豆 콩 재배	12. 績麻 베 짜기	13. 收穫 수확	14. 紡績 길쌈

위의 표에서 보듯이 <후농구>의 장제목은 <농구>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農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농사일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여러 農書나 월령체 가사인 <農家月令歌> 등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한편, 장의 순서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농구>는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행하는 ‘盖屋’, 즉 집수리로부터 시작하여, 봄과 여름에 행하는 여러 가지 농사일들을 서술한 후, 가을의 ‘收穫’과 겨울의 ‘紡績’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렇게 볼 때,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농구>와 <후농구>는 같으나, <차농구>가 <농구>와

27) 농사일의 시간적 순서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표 참조.

마찬가지로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따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해, <후농구>는 일 년이라는 긴 시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 년을 단위로 한 시간적 구조를 통하여 <후농구>는 한해 농사의 중요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후농구>의 이러한 특징은 월령체로 된 조선 전후기의 주요 農書 및 시가들을 통해 볼 수 있다.²⁸⁾ 예로 조선 중기의 농서인 高尚顏(1553~1623)의 <農家月令>과 조선 후기의 월령체 시가인 丁學遊(1786~1855)의 <農家月令歌>를 <후농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후농구>에 나타난 농사일의 종류		<농가월령>	<농가월령가>
제1장	지붕수리	1월 (이엉을 엮고, 새끼를 꼬아, 속히 집을 수리한다.)	1월 (낮이면 이엉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때 미처 집 이으면 큰 근심 달리로다)
제2장	보 막기		3월 (물꼬를 깊이 치고 도랑 밟아 물을 막고)
제3장	기장 심기	3월 (오조와 울기장을 파종한다.)	
제4장	못물 대기		4월 (무논을 써올리고 이른 모 내어 보세)
제5장	김매기	3, 4, 5, 6, 7월 (보리밭을 김매기한다. /보리밭을 두 번째로 제초한다....)	6, 7월 (집터 울밑 돌아가며 잡풀을 없게 하소 / 골 거두어 김매기)
제6장	번진		
제7장	양잠	4월 (이 절기에 이르면 누에가 이미 많이 번식하였을 터이다. 뽕잎을 따는 데에 비	4월 (한잠 자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 밥을)

28) 조선시대의 월령체 농서들로는 강희맹의 <四時纂要抄>, 柳彭老(1554~1592)의 <農家說>, 朴世堂(1629~1703)의 <田家月令> 등이 있다.

29) <농가월령>의 텍스트는 다음의 책에 나와 있는 현대어역에 따른 것이다. 지면상 따로 원문을 밝히지는 않는다.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7 (農家說·渭濱明農記·農家月令·農家集成), 농촌진흥청, 2004. 또 <농가월령가>의 텍스트는 박성의 校注, 『농가월령가·한양가』(교문사, 1984)의 현대어역본으로 하였다. 이 책에서 사용한 <농가월령가>의 원대본은 정인보본이다.

		와 이슬을 피할 겨를 없이 누에에게 먹일 수박에 없다.)	
제8장	모내기	4, 5월 (올벼를 모내어 옮겨 심는다./벼의 중생을 옮겨 심는다. 늦벼를 옮겨 심는다.)	5월 (그루같이 모심기 제 힘을 빌리로다)
제9장	실짓기		7월 (명주 오리 어서 몽쳐 찬 바람 나기 전에 짜아내소)
제10장	보리타작	5월 (급히 보리를 수확한다.)	5, 6월 (南風은 때맞추어 麥秋를 재촉하니 보리밭 누른 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베어내고)
제11장	콩 재배	5, 6, 7월 (그루같이하는 데 있어서 재배하는 작물에 콩과 팥이 제일 우선이고 / 콩과 조를 김낸다. / 콩과 조가 성장하는 밭을 두 번째 중경한다.)	6월 (오조 이삭 청태콩이 어느 사이 익었구나)
제12장	베 짜기		6월 (고운 삼 길쌈하고)
제13장	수확	7, 8, 9월 (올벼를 수확한다. / 중생중벼를 수확한다. / 늦곡식을 수확한다.)	9월 (물색은 좋거니와 추수가 시급하다...)
제14장	길쌈		11월 (등잔불 긴긴 밤에 길쌈을 힘써 하소)

고상안의 <농가월령>은 조선 전중기의 월령체 농서 중 비교적 자세한 편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후농구>에 제시된 농가의 일들이 거의 모두 나와 있다. 비록 실짓기나 베 짜기, 길쌈 등 부녀의 노동과 관련한 사항은 월령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것들과 관련된 주요 농사, 즉 양잠이나 목화 기르기 등은 중요한 농사로 <농가월령>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³⁰⁾ 한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월령체 시가인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에는 부녀의 노동과 관련된 항목들 또한 모두 나와 있다. 이처럼 볼 때, <후농구>의 내

30) 3월령~7월령 참조.

용은 조선시기 월령체 농서 및 시가에서 공히 중요하게 다룬 농사일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령체 농서 및 시가에서 각 농사일들이 배치된 달을 살펴보면, <후농구> 각 장의 내용들이 대체로 한 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열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결국 <후농구>는 당대 농가의 주요 행사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현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월령체 형식에 근접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한 것이 <후농구>가 <차농구>와 변별되는 특징이라면, 교훈성을 내포한다는 점은 <후농구>가 <차농구>와 공유하는 특성이다. 농부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정서를 이상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교훈성을 띠는 것은 <차농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농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제목	관련구	번역
種黍	辛勤勸少長	차츰차츰 자라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네
折草	相將多少較勤慢	서로 많고 적음으로 장차 게으르고 부지런함 건주는데
反田	忘勤若 但覺日月促	고생스러움은 잊어버린 채 다만 세월 빠른 것만 깨닫는다네
養蠶	況大姑小姑各相私	하물며 큰시누이 작은시누이 서로 도와 일하니
移秧	老少皆戮力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힘을 다하네
纏絲	較諸隣我自喜	이웃과 비교하며 스스로 기뻐하도다
打麥	須自力當學扈	모름지기 자력하고 마땅히 잔을 들리라
耕豆	大郎小郎力此間 耕盡荒暮始還	큰서방님 작은서방님 여기에서 힘을 쓰니 밭갈이 다 마치고 저녁 무렵 돌아가리
收穫	樂炮羊共御觴	양 굵고 술 권하며 함께 즐기리라

위에서 보면 권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모두 농부의 근검한 모습과 긍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교훈의 직접적 진술에 비해 보다 시적인 방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근면과 검약이라는 교훈의 주제를 강하게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

농구>는 <차농구>와 유사하게 교훈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성과 교훈성의 확보는 <후농구>의 제작의도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앞서 서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형상은 <후농구>의 제작목적에 대해 “이제 또 그 대강에 따라 지어 농부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차농구>와 유사하게 <후농구> 또한 농부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지닌 작품이라면 농부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과 또 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후농구>는 사실성과 교훈성의 확보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농구>에서 교훈성은 직접적으로 진술되기보다는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형상을 통해 정서를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는 서정 장르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서정적 측면은 <후농구>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驅牛石角上	돌 모서리 위로 소를 몰아 올라가니
屨屨良耜看掌	밭 잘 가는 좋은 따비 내 손 안에 놓여 있네
深耕易耨黍稷馨	밭 잘 갈고 김 잘 매어 기장 냄새 향긋하니
辛勤勸少長	차츰차츰 자라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네

-種黍<기장을 심다>

得雨移秧急	비가 내려 모내기가 다급해지니
握分烟縷細流碧	손아귀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도랑물은 푸르네
蜻蜓點水春意滿	잠자리 물을 차고 봄기운이 가득한데
町畦揔拭目	밭두둑을 온통 눈 씻고 바라보니
綠成行	파랗게 열을 이루었구나
老少皆戮力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힘을 다하네

-移秧<모내기>

제3장인 ‘種黍’에서는 기장 농사를 짓기 위해 돌언덕을 올라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렸고, 제8장인 ‘移秧’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인 정경을 그렸다. 이러

한 형상화 과정 중 눈에 띄는 것은 감각적 심상과 그로 인해 환기되는 서정이다. 제3장에서는 향긋한 기장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통해 풍요로움의 정서를, 제8장에서는 봄기운이 가득한 논외 시각적 심상을 통해 싱그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서정적 심상을 통해 농사일은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후농구>의 서정성은 교훈성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농가의 아름답고 넉넉한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근면한 농가의 삶을 자연스럽게 독려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후농구>의 교훈성이 농부의 근검하고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형상화 가운데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과는 상통한다. 이처럼 볼 때 <후농구>는 사실성과 교훈성, 그리고 서정성의 세 요소를 두루 갖추으로써 농부들과 함께 즐긴다는 작품의 제작목적에 달성하고자 했던 작품으로 파악된다.

4.2. 후농구의 문학사적 의미

<후농구>와 같은 제작의도와 작품성격을 지닌 시기는 정학유(鄭學遊, 1786~1855)의 <농가월령가>에 와서나 살펴볼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후농구> 이전에는 농가의 사업을 일 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읊은 경우가 국문시가에서든 한문시가에서든 별로 보이지 않는다. 농사와 관련된 월령을 제시한 조선시대의 문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편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가로 된 것은 없다. 고려가요 <동동>이나, <觀燈歌> · <思親歌> 등 일명 달거리계 민요 · 가사가 존재하지만, 이는 월별로 이루어져야 할 농사일을 제시하는 월령체 시가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³¹⁾

정학유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농가월령가>는 서정적 요소와 교술적 요소를 두루 갖춘 가사로서,³²⁾ 조선후기의 대표적 가사 중 하나이다. 그런

31) 성현의 <田家詞十二首>와 같은 한시가 있긴 하나, 이 또한 자연과 풍속 묘사에 치중하여 농가의 사업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32) <농가월령가>의 문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했다. “이념적 · 이상적 지향과 현실적 · 사실적 지향의 교차 혹은 추상적인 주장과 구체적 제시의 調和가 돋보이는 짜임새인 것이다.” 김은희, 『農家月令歌의 짜임새와 그 意味』, 『어문연구』 제37집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22~223면.

데 이러한 <농가월령가>의 특성은 <후농구>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은 모두 농부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교훈을 사실적 묘사와 풍부한 서정 속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농가월령가>는 빈풍시를 본받아 농민들을 권면하고자 한다고 말미에 제작의도를 밝혀 놓았다. 또한 권면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서³³⁾ 작품의 제작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서술은 작품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내용은 역시 월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전달 중에도 은근히 교훈적 주제가 드러나며, 한편으로는 서정적 자연묘사 속에서도 교훈적 주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모두 <후농구>에서 보았던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농가월령가> 중 몇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사실성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젊은이는 태질이요 계집사람 낫질이라 아이는 소 몰리고 늙은이는 섬 육이
기 이웃집 운력하여 제 일 하듯 하는 것이 뒷목 추기 짚 널기와 마당 끝에 키
질하기 일변으로 면화트니 씨아 소리 요란하다 틀 차려 기름 짜기 이웃끼리
협력하세 燈油도 하려니와 음식도 맛이 나네

북어캐 짓 조기로 추석 명일 쇠어 보세 신도주 오려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나뉘 먹세 머느리 말미 받아 본집에 근친 갈 제 개
잡아 삶아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앞의 예는 9월령 중의 일부이다. 추수철의 바쁜 농가 사업을 풍속화를 그리듯이 묘사하였다. 뒤의 예는 8월령 중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차레를 지내고 근친을 가는 추석의 모습이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려졌다. 이러한

3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어와 우리 성상 애민 중농 하오시니 간측하신 권농운음 방곡에 반포하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들 네 몸 이해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쏘냐 산전수답 相半하여 힘대로 하오리라 일년 풍흉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天災를 면하니 제각각 근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부분들은 모두 사실성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앞의 예는 농사일을, 뒤의 예는 명절의 풍속을 그린 경우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농가월령가> 각 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적 묘사 속에서,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하는 바람직한 농민의 상이 부각되는가 하면, 고달프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나게 즐기기도 하는 넉넉한 농민의 삶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농민의 형상은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쓸 것을 독려하는 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기에 효과적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부분은 서정적인 자연묘사가 교훈적 주제와 어우러지는 경우이다.

이월은 중춘이라 경칩 춘분 절기로다 초육일 쯤생이는 풍흉을 안다 하되 스무날 陰淸으로 대강은 짐작나니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히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萌動한다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르도다 멧비둘기 소리 나니 벼들 빛 새로워라 보쟁기 차려 놓고 春耕을 하오리라

구월이라 季秋되니 寒露 霜降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 기리기 언제 왔노 벽공에 우는 소리 찬이슬 재촉는다 만산 楓葉은 臙脂를 물들이고 울밑에 황국화는 秋光을 자랑한다 구월구일 가절이라 花煎하여 薦新하세 절서를 따라가며 追遠報本 잊지 마소 물색은 좋거니와 추수가 시급하다

위의 예는 2월령과 9월령 중의 일부인데, 서정적인 자연묘사가 두드러진다. <농가월령가>의 각 장은 그 달의 절기를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경우 각 계절의 묘사를 통해 서정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흔하다. 위의 예들 또한 그러하다. 2월령에서는 “논물이 흐르고 멧비둘기 소리가 들리며 벼들 빛이 새로운” 봄의 경치를 묘사하여 싱그러운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은 곧 ‘춘경’을 하는 농사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9월령에서 또한 만산의 단풍과 울밑의 국화로 채색된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여 서정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서정 역시 곧 ‘추수’라는 농사일로 이어진다. 이렇듯 <농가월령가>는 아름다운 서정적 배경 속에 농사일을 어우러지게 한다. 그 결과 농사일이 결코 고된 것만은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권면이라는 교훈적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임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본 바처럼 <농가월령가>는 월령체 시가의 형식을 차용하여
사실성과 교훈성, 그리고 서정성을 두루 갖추었으며, 그 결과 농민들과 함
께한다는 작품의 제작의도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월령가>의 특성은 전 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후농
구>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특성이다. 두 작품은 비록 사용 언어는 다르지
만 비슷한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속성들을 지닌 시
가는 한국고전시가사에서 <후농구>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詩經』 「邠風」의 <七月>과 같은 월령체 시가의 동아시아적 고전이나 조
선 전중기의 몇몇 월령체 농서들이 <후농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
작되나, 한 해의 시간에 따라 농사일을 제시하며 사실성·교훈성·서정성
을 두루 갖춘 시가는 한국고전시가사에서 <후농구>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후농구>는 이 방면 시가의 선편을 잡아, <농가월
령가>와 같은 후대 가사의 전조적 작품이 되는 것으로 그 문학사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지령록』 제6책에 나란히 실린 이형상의 연작 악부시 <차농
구>와 <후농구>의 특성 및 의미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차농구> 연
작으로 명명하여 그 특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형상의 <차농구> 연작은 <농구>라는 조선시가의 고전을 수용
한 결과물이되, 고전의 단순 모방에 그치지 않고 형식과 구조의 개성적 변
용을 보여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여음이나 민요적 리듬 등 국문시가적 특
성을 포착하였으며, 구조적 측면에서는 원시가의 순서를 나름의 원리에 의
해 재편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한문
으로 된 조선시가의 고전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문시가적 특성을
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의 내용구조를 효과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이형

상은 그 자신이 말한 바 ‘東方樂府’로서 손색없는 작품을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차농구> 연작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원시기와 변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것은 교훈성의 강화와 장르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다. 이 중 교훈성의 강화는 17세기 농촌경제의 피폐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향촌 우거라는 작가의 전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바, 나름의 시의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장르성의 다양화는 문학과 관련된다. 특히 <후농구>에서는 사실의 교술적 서술 및 정서의 서정적 서술이 복합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장르성은 교훈적 주제를 보다 다채롭게 형상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작품의 문학적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차농구> 연작의 내용적 특성은 시의성과 문학적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차농구> 연작은 형식과 내용의 양면에서 고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 국문시가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후농구>는 교훈성과 사실성, 서정성 등의 다양한 내용적 특성과 한 해의 시간 순서에 따르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가사의 중요한 작품인 <농가월령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비록 두 작품 간의 직접적 관계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농가월령가>의 전조적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후농구>는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형상은 『지령록』 제6책에서 한문시가와 국문시가를 포괄하여 역대의 ‘동방악부’를 수집·정리하였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차농구> 연작은 민족시가에 대한 병외의 이러한 포괄적 시각이 그 자신의 악부시가에서도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차농구> 연작은 한문시가를 모방하였으면서도 국문시가의 전통을 살렸으며, 한문시가의 외형을 지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문시가와 문학사적 관련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형상의 <차농구> 연작은 기존 한시의 단순한 아류작이 아니라, 시의성과 문학적성을 지닌 당대적인 작품이자 고전시가사에서 또한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평가된다.

부록1. 〈후농구〉 전편 및 번역

1. 盖屋

破屋毀已極
舊霤新簷
到今皆相若
茅絢略備
天時且當稼穡
滲漏何處可最
老眼昏未燭
此所以縹緲桑土撒
然後始耕鑿

지붕 이기

집 망가진 지 이미 심하여
낡은 처마 새 처마
이제 모두 똑같다네
띠와 새끼 대략 준비됐는데
때는 농사짓기 바쁜 철이구나
물새는 것 어디가 가장 심한가
노안이 어두워 똑똑히 안 보이네
이것이 뽕나무뿌리 거두어 지붕 엮고서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네

2. 築泐

平明畚鍤北川歸
東方曙色方晞
長堤悠爾成石渠
被得青莎衣

보 쌓기

동틀 무렵 북천에서 둑 쌓고 돌아오니
동쪽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네
긴 둑에 잠간사이 돌도랑을 이루고
푸른 뗏장을 입혔다네

3. 種黍

驅牛石角上
矍矍良耜看在掌
深耕易耨黍稷馨
辛勤屨少長

기장 심기

돌 모서리 위로 소를 몰아 올라가니
밭 잘 가는 좋은 따비 내 손 안에 놓여 있네
밭 잘 갈고 김 잘 매어 기장 냄새 향긋하니
차츰차츰 자라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네

4. 注苗

秋圃嘉禾積千鍾
摠由今日立苗功
雖然深戒在宋掇

못물 대기

가을들의 아름다운 벼가 수천 섬 쌓이는 건
모두 다 오늘에 모를 심은 공이라네
그러하나 깊이 경계할 것은 모 뽑은 송인의
어리석음이니

勤更不如慵

부지런함이 도리어 게으름만 못하다네

5. 折草

김매기

人人折草皆同
野無青色山翁翁
相將多少較勤慢
糞田也不空

모두 다 같이 김매기를 하니
들에는 푸른빛이 없고 산은 얼푸르네
서로 많고 적음으로 장차 부지런함 견주는데
논밭에 거름주기도 빠뜨리지 않는다네

6. 反田

번전

寸陰真可惜
終歲無暇隙
反田曝陽在此耕
數數猶不足
忘勤若
但覺日月促

촌음도 참으로 아까운지라
한 해가 다하도록 쉴 틈이 없네
폭양에 번전하기 이 쟁기질에 달려 있으니
자주자주 하여도 오히려 부족하구나
고생스러움은 잊어버린 채
다만 세월 빠른 것만 깨닫는다네

7. 養蠶

양잠

戴勝降草樹荒
頃筐採桑汗翻漿
蠶種比之昨年強
時漸晏乎益忙
況大姑小姑各相私
今年想倍昨年強
鋤已晚田自荒

오디새가 내려앉고 초목이 우거져
광주리 기울여 뽕잎 따니 땀이 철철 흐른다네
누에 종자 비교컨대 작년보다 튼실한데
때가 점차 늦어지니 더욱더 급해지네
하물며 큰시누이 작은시누이 서로 도와 일하니
올해엔 작년보다 배는 더 잘 되겠는데
김매기가 늦어서 밭은 절로 황량해지네

8. 移秧

모내기

得雨移秧急
握分烟縷細流碧
蜻蜓點水春意滿

비가 내려 모내기가 다급해지니
손아귀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도랑물은 푸르네
잠자리 물을 차고 봄기운이 가득한데

町畦摠拭目
綠成行
老少皆戮力

밭두둑을 온통 눈 씻고 바라보니
파랗게 열을 이루었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힘을 다하네

9. 纜絲

실짓기

繚亂絲繭在筥
縑車轉紉在匕
晝自勵夜暫止
功力細絲綸美
裹手端投篋裡
較諸隣我自喜

명주실이 광주리에 어지러이 담겼네
물레 돌아가니 명주실이 가락바퀴에 있도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시 쉬세
공력이 세심하여 사륜이 아름답도다
실끝을 손에 감아 상자 안에 던지곤
이웃과 비교하며 스스로 기뻐하도다

10. 打麥

보리타작

打麥苦
倒我卮
未秋先有穫
賴此免吾飢
烈炎曝甚
惟恐夕陽遲
須自力
當舉卮

보리타작 힘이 드니
내 술잔을 기울이네
가을 오기 전에 수확하니
이로써 굶주림을 면한다네
땀별이 따가우니
석양이 더디 올까 두렵다네
모름지기 자력하고
마땅히 잔을 들리

11. 耕豆

콩 심기

六月火雲蒸肉山
一犁春色獨林端
大郎小郎力此間
耕盡荒暮始還

유월의 무더위가 몸뚱이를 쪼 대는데
한자락 봄빛은 나무 끝에만 달려 있네
큰 서방님 작은 서방님 여기에서 힘을 쓰니
밭갈이 다 마치고 저녁 무렵 돌아가리

12. 績麻

漚麻須自前溪濯
載績終宵鷄又喔
鷄又喔機還置³⁴⁾
松明火自然飛豹脚
安眠何曾片刻
織成亦當更灰濯

길쌈하기

삼 담글 땀 모름지기 앞내에서 씻어야지
밤새도록 길쌈하니 닭이 또 우네
닭이 또 울어 배틀 도로 물려 놓으니
관솔불에 자연히 모기가 날아드네
잠시라도 편히 자길 어찌 바라리오
베 다 되면 또 응당 다시 잣물로 씻을 테니

13. 收穫

禾登場兆加祥
露氣穰晚何傷

隴雲黃牛服箱
樂炮羊共御觴

수확

벼를 추수하니 조짐이 더욱 상서로워
벼짚에 이슬 기운 많으니 날 저문들 어찌
해로우리
구름 낀 언덕길로 누런소가 싣고 가면
양 굵고 술 권하며 함께 즐기리라

14. 紡績

促織當面過
明滅寒燈眼欲花
輕梭擲日月
杼柚弄年華
績功今夜最麗服
靚粧不須誇
默數飢食與寒衣
畢竟皆自吾家

베짜기

귀뚜라미가 눈앞에 지나가는데
쓸쓸한 등불에 눈이 현란해지네
가벼운 북은 해 달처럼 빠르고
베틀은 세월을 희롱한다네
오늘 밤 짠 베는 더없이 고운 의복이나
곱게 단장하고 자랑하지는 말라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는 것에 그치는
것 묵묵히 헤아려보면
필경은 모두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니

34) 본래 '杼置'로 되어 있으나, 置자의 잘못으로 보임.

참고문헌

1. 자료

- 『瓶窩集』 권3.
 『私淑齋集』 권11.
 『樂學拾零』,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樂學便考』, 형설출판사, 1976.
 『思齋集』 권1.
 『芝嶺錄』 제6책.
 『(국역)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70.
 『(국역)瓶窩集』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농촌진흥청 편, 『고농서국역총서』 7(農家說·渭濱明農記·農家月令·農家集成),
 농촌진흥청, 2004.
 박성의 校注, 『농가월령가·한양가』, 교문사, 1984.

2. 논저

- 권영철, 『瓶窩 李衡祥 研究』, 한국연구원, 1978.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 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혜안, 2005.
- 권영철, 「瓶窩全書 解題」, 『瓶窩全書』 제1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5면.
 김용찬, 「병와가곡집」의 형성연대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2002, 189~211면.
 김은희, 「『農家月令歌』의 짜임새와 그 意味」, 『어문연구』 제37집 4호,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09, 211~231면.
 김진희, 「瓶窩 李衡祥의 樂府觀을 통해 본 『芝嶺錄』 第六冊의 체제와 의미」, 『한
 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가학회, 2012, 127~163면.
 김진희, 「병와 이형상의 <偁父詞>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36집, 열상고전연구
 회, 2012, 339~379면.
 려기현, 「瓶窩 李衡祥의 樂論 研究」, 『한국시가연구』 제9집, 2001, 363~392면.
 려기현, 「병와 이형상의 樂論 연구(2)」, 『반교어문연구』 제12집, 2000, 87~119면.
 신연우, 「朝鮮前期 官人 農村詩의 構圖」, 『국제어문』 제25집, 2002, 59~87면.

Consideration of the *Chanonggu* Series by Lee Hyongsang

Kim, Jinhee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onggu* series in *Jiryoungrok* volume 6 by Lee Hyongsang. The *Chanonggu* series borrowed Kang Heemaeng's *Nonggu*, which was one of the most popular poems in Lee Hyongsang's time. However, the *Chanonggu* series did not only imitate an existing famous work but also contained their own characteristics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classical work. In this series, Lee Hyongsang reorganized the chapters of the original text and created a different structure from it. He also modified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 intensifying didactic parts and diversifying literary features. Such modifications enabled the *Chanonggu* series to reflect the author's social circumstances, when the edification of people was more urgent in the deteriorating situation of rural areas. With these form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the *Chanonggu* series could also make an influence on *Nonggawollyoungga*, an important poetic work of the late Joseon era. In conclusion, the *Chanonggu* series was not a mere imitation of a classical poem but a meaningful work that contained timeliness as well as literary value, achieving a certain status in Korean literary history.

Keywords : Lee Hyongsang, *Chanonggu*, *Hunonggu*, *Nonggu*, *Jiryoungrok*, translated poetry, refrain, *wollyoungche*, classic, reception, *Nonggawollyoungga*

접수일자: 2013. 3. 31
심사기간: 2013. 3. 31~2013. 5. 20
게재결정: 2013. 5. 20